

# Trust Initiative

왜 신뢰운동인가 ?

왜 화폐 자본이나 권력 자본이 아닌  
신뢰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

왜 화폐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아닌  
의사소통적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

현대 사회의 특징 : Diversity, Complexity, Dynamics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기독교 윤리 운동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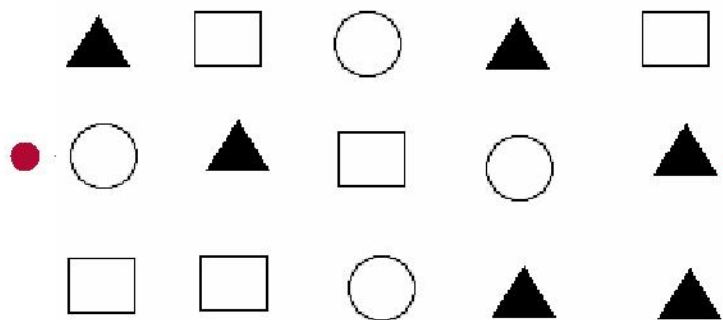
사회자본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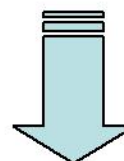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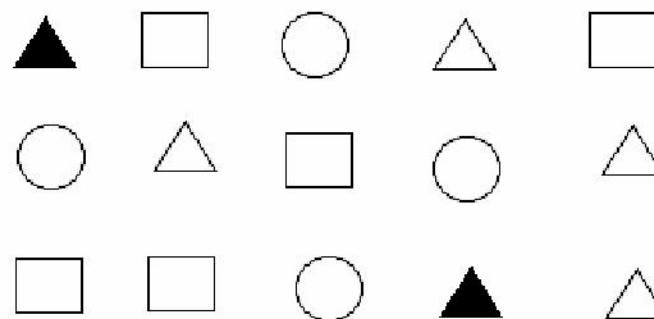
네트워크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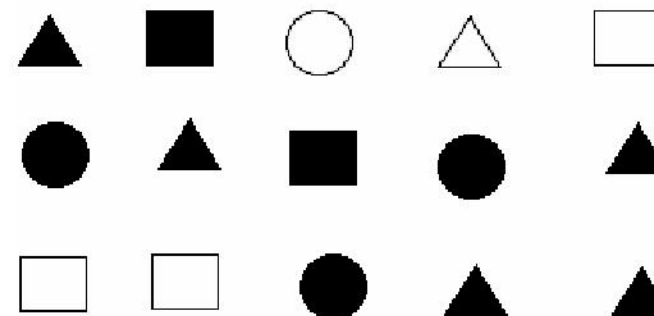
사회연결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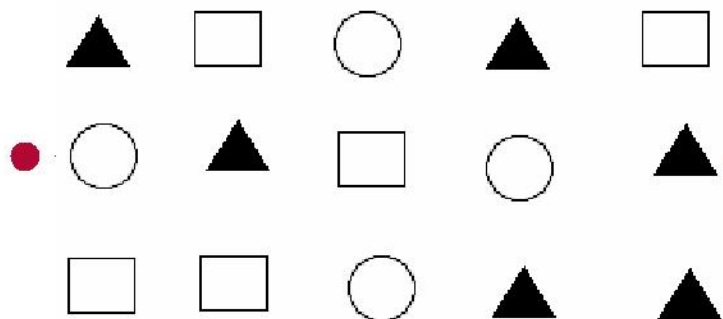


원자적 사회(고립된, 분절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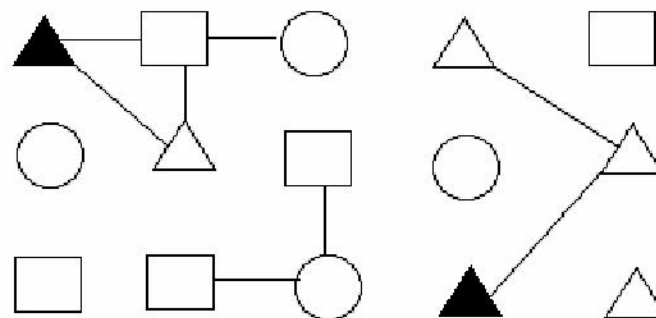


단순 확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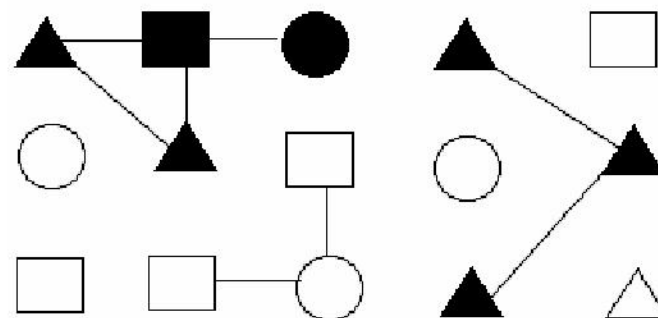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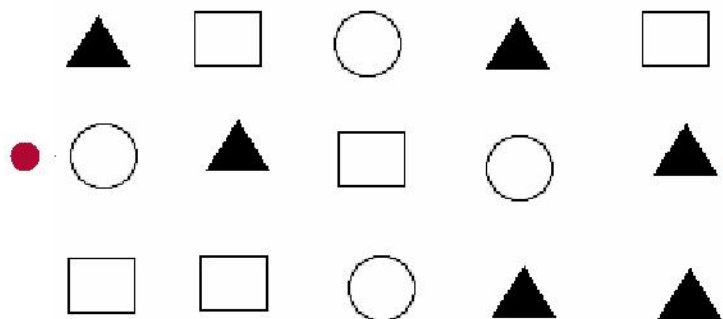


원자적 사회(고립된, 분절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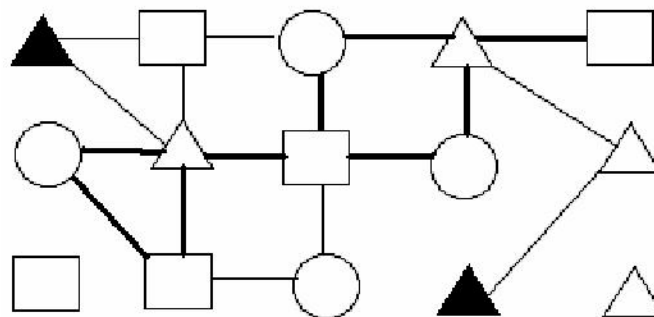


단일 연결망을 통한 확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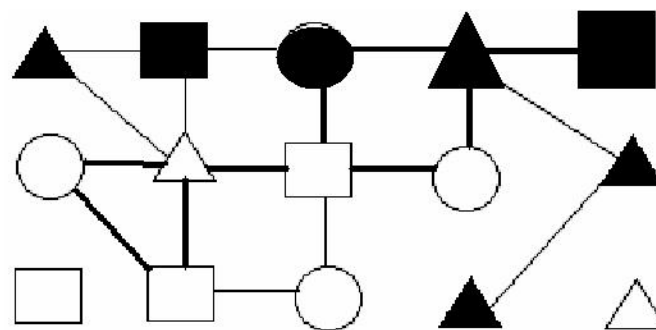




원자적 사회(고립된, 분절된 사회)



다중 연결망을 통한 확산 체계



# I. Network의 개념

- Reiner & Schultz (1993):  
비공식적인조직 간 협력/협조 체제
- Liebeskind, Oliver, Zucker, & Brewer (1996):  
신뢰 규범의 공유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집합체
- Powell (1990):  
수평적 상호작용, 독립적인 자원의 교환/흐름,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 Network의 특성

## (1) 일반적 특징 : 상호작용의 유형상의 특성

- 수평적인 상호작용
- 장기간 반복되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호의존성
- 비공식적인 협동 (참고: 협조게임 vs. 비협조게임)
-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 구성원, 또는 구성단위, 구성조직간의 비정형화된 관계
- 중간적 수준의 구속력을 통한 집단 유지



# Network의 특성

1. 선택적 (select)
2. 지속적 (persistent)
3. 묵시적이고 개방적인 협약 (implicit and open-ended contact)
4. 구조화된 (structured)- 유형화된 (patterned)
5. 자율적인 (autonomous)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신의 정



체성 (identity)을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연결망 분석

연결망 분석은 본래 사회학에서 양적 분석방법의 한 분야로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관계적 사회학 (relational sociology)’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관심 또한 사회학에서 높아지고 있다. 행위자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관계적 사회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빠질 수 있는 환원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구조의 발현적(emergent) 속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현상과 구조를 해명하고자 한다.

# 사회연결망 분석

1. 구조적 틈새 (Structural hole)
2. 구조적 자율성 (structural autonomy)
3. 네트워크 제약 (network constraint)
4. 네트워크 공개성 (network openness)
5. 노드간의 연결망 수(관계의 수)
6. 노드들 간의 관계의 빈번도(frequency)
7. 네트워크의 규모, 밀도, 위계(hierarchy)

# 왜 사회자본 연구인가 ?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협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서로 간에 관심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쟁자가 아니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료로 인식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집단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드는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무엇’의 실체를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다.

# 사회 자본(Social Capital)

- 사회(Social)
- 자본(Capital)

(1) '사회' - 공동체, 정치적인 것, 관계, 상호의존성, 역지사지, 배려, 환대, 보살핌, 돌봄, 예의 등

(2) '자본' - 교환가치, 자기 증식성,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잉여가치, 고정자본, 가변자본, 하드자본, 소프트자본 등



-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려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오히려 공익을 더 증진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행동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자본의 운영에 대해서 ‘레세페’(Let it be) 그냥 놓아 두어라 라는 뜻의 프랑스어가 핵심 테제가 되는 것이다.

● 화폐소유자가 100원으로 빵을 사서 그 빵을 팔아 100원을 얻는다면, 그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100원으로 빵을 사서 120원으로 팔 수 있을때 즉 더 큰 화폐의 획득, 또는 가치증식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20원이 잉여가치이며,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을 '과정 중의 가치'(value in process)라고 부른다.

이러한 순환의 목적은 가치의 증식이기 때문에, 100-빵-120으로 끝나지 않고 120-빵-150으로 혹은 100-빵-150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면서 가치의 증식을 추구하게 된다.



● ● ● ●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 정신은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돈을 돈을 낳을 수 있다. 5달러가 7달러가 되고 1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와 맞물려 윤리의 옷을 입고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나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행복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동감-sympathy)

김병연 교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인을 ‘정의의 덕 내에서 자기 이익을 신중하게 추구하는 자’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경제인은 사회 조화와 경제발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

네그리는 자본의 가치증식 성격을 확장해  
서 사회적 구조로 설명한다.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며, 자본은 완전히 사회적 자본이라  
고 주장한다.

생산-노동, 노동-상품, 주인-노예의 관계  
가 사회 일반에 보편적으로 내재화 되어 있  
다. 따라서 사회는 자본의 사회로서 나타난  
다. 사회적 제조조건은 자본에 의해 포섭된다.

월러스틴은 사람들이 자본을 자기확장이라는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역사적 사회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공공화 되었다고 봄.

자본이란 더 많은 축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만 ‘자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쓴 사람은 리다 젓슨 하니판(Lyda Judson Hanifan, 1916)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1916년 마을 학교 공동체 센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친밀성이 가진 힘을 보면서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 사회자본(Social Capital)

-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신뢰, 규범, 호혜성, 네트워크 등)
  - 개인이나 집단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에 이로운 협력을 조장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역량(capabilities)
  - 한편으로 사회 자본은 화폐 자본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과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 ※ 인맥 등 개인적 역량을 사회 자본이라 하며, 사랑(아가페, 필리아, 에로스)을 사회 자본으로 보기도 한다.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망(networks), 규범(norms), 신뢰(trust) 등과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들로 구성
-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의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기능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급하고, 떨어진 인간들간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 더 큰 형태의 협력을 '발현'시키는 화학적 결합을 성사시켜 더 큰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 담당한다.



# Coleman (1988)

- 1)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 그 구조내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촉진한다
- 2) 다른 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그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목적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기능을 갖는다
- 3)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배태성)되어 있다

## - Bourdieu (1986)

- - 부르디외는 사회 자본을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부르디외는 콜만과 달리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신의 자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은폐된 형태의 자본을 축적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차별과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보는 시각이다.

# Putnam (1993, 2000)

- 네트워크나 신뢰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 사이의 협동이나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구조.
-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주민 상호의 신뢰관계가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의 윤리나 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주민 사이에 형성된 매우 강한 연대감이나 인간관계를 의미.
-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이 되는 토대.

Nan Lin(2001)

“사회 자본이란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회적 관계에 투자되는 것”

경제학의 자본 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이 투자되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식이라 숙련에 투자하면 인적 자본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면 그 결과로서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회 자본이라 불렀다.



Ostrom and Ahn (2003):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 그리고 개인들 간의 관계의 속성

- 신뢰성 (trustworthiness)
- 네트워크 (networks)
- 공식/비공식 규칙과 제도

# 집합적 행동의 문제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지만 정작 개인들은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보통 집합적 행동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라 해서 사회과학에서는 일종의 이론적 딜레마로 취급한다.

마치 기윤실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의미있고 좋은 일을 하지만, 정작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 사회 자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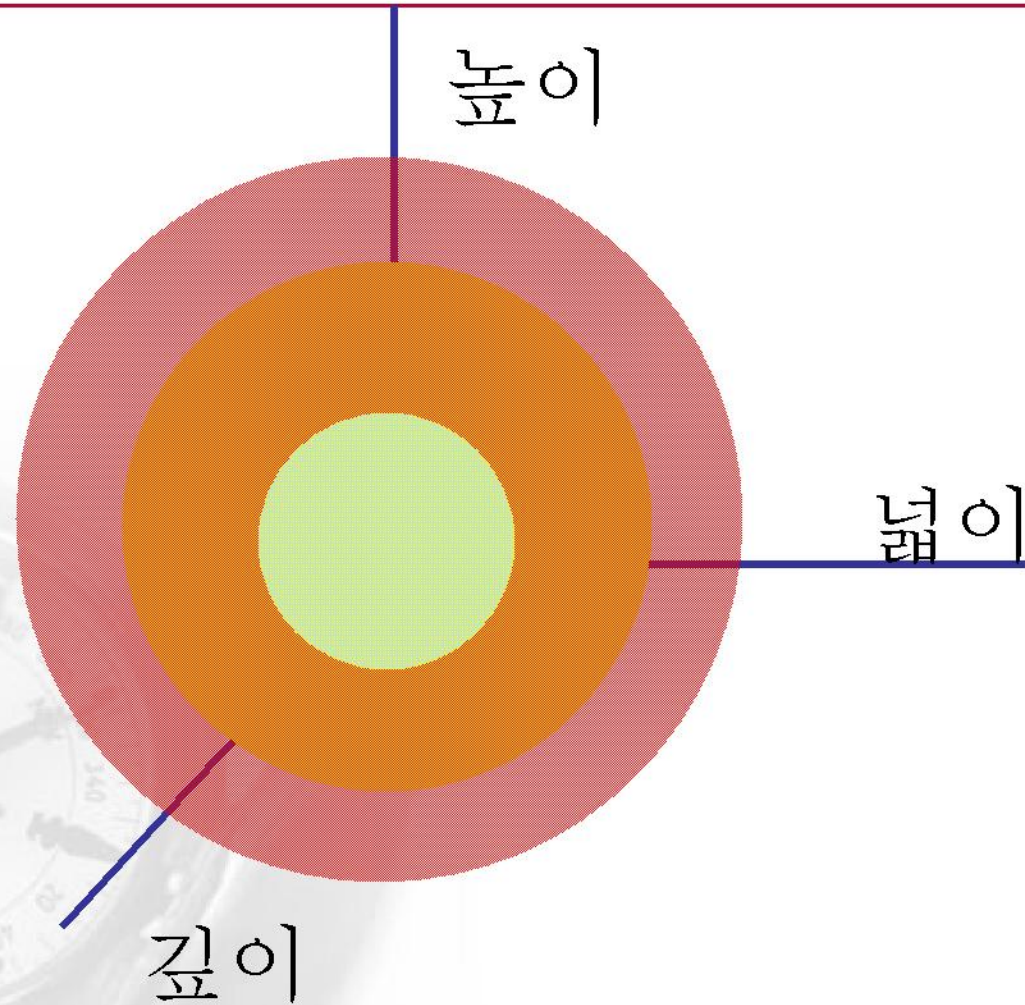
- 사용이나 확장과 더불어 가치가 축적되는 일종의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의 성격을 갖는다. 대부분의 경제적 재화들이 쓰면 쓸수록 그 효용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decreasing returns)적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 자본은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축적되고 용도가 확장된다.
- 공동체 내부의 약한 연대는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강한 연대는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힘들게



# 사회 자본의 기능

- 사회 자본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통합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다.
- 왜냐하면, 시민 참여 네트워크는 일반화된 호혜주의(reciprocity)를 번성케 하며, 사회적 신뢰(trust)를 증대시키고, 결사체 네트워크는 의

# 사회 자본의 3차원





사회자본의 핵심은 신뢰이며, 따라서 사회자본은 곧 신뢰자본이다.